

4 기획

동일 등록금, 다른 교육 여건…“체감되는 수업 원한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난달 15일 진행된 국제캠 소통 간담회에서 생대 김영현(식품생명공학 2020) 학생회장은 생대와 공대가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대 학생은 졸업 시 이학사를 받고, 공대 학생은 공학사를 받는데 등록금이 같기 때문이다. 같은 이학사를 받는 이과대의 입학비 제외 등록금은 생대와 공대보다 약 120만 원 저렴하다.

등록금은 학사 종류가 아닌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에 따라 책정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분야 단과대가 존재하는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는 졸업 시 취득하는 학사와 등록금 종류가 일치한다. 세 학교 모두 이학사가 나오는 학과 등록금이 공학사 학과 등록금보다 저렴하다. 이에 기획조정처는 등록금은 졸업 시 수여되는 학사가 아닌, 단과대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에 기준해서 책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정처 김도균 부처장은 “졸업 시 수여되는 학사와 등록금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학사를 받기에 이과 계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운영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단과대에 더 많은 등록금이 책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처장은 호관대와 경영대를 예시로 언급했다. 김 부처장은 “호관대 조리&푸드디자인학과와 조리산업학과, 경영대 빅데이터응용학과는 호관대와 경영대의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이 많은데, 세 학과 졸



생대 김 회장은 “생대 등록금을 낮춰주거나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대학주보 DB)

업생 모두 같은 경영학사를 받는다고 답했다.

생대, 실험실습비 사용 학점수 적어 기초체, “예산은 다양한 곳에 쓰여”

생대 학생은 등록금이 같은 이학사를 받는 이과대보다 높은 만큼, 충분한 인프라와 체감 가능한 우수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대 김 회장은 “생대 등록금을 낮춰주거나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진(식품생명공학 2024) 씨는 “실험 수업 환경이 개선되고

장학 금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실험 수업 환경이나 강의의 수, 장학금 등 다양한 지점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공대, 생대, 이과대 모든 학과 교육과정편성표를 비교·분석해 봤다. 그 결과, 설계·실험·실습·실기·임상 과목처럼 강의 운영비가 많이 드는 과목 학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생대가 가장 적었다.

2025학년도 교육과정편성표에 따르면, 생대 ▲스마트팜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유전생명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1~4학년 설계·실습·실기·임상 강

의 학점 수의 학과당 평균은 31.5학점이다. 같은 방식으로 구한 공대, 이과대 학과 당 실험·실습·실기 강의 학점의 평균은 각각 41.1학점, 37.1학점이다. 즉, 세 단과대 중 생대가 이러한 과목의 학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에 기획조정처는 예산의 쓰임새가 다양함을 언급했다. 김 부처장은 “실험·실습 과목만이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은 아니다”라며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곳에 예산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생대의 과수원, 온실 등이 그 예다. 그러면서도 김 부처장은 “학생이 등록금에 관련해 불만을 갖는 것

은 내는 만큼 돌아오는 교육 여건이 체감되지 않아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공학사 선택트랙 개설 요청 교육과정 개편 가능성은 열려있어

김 회장은 “생대 학과 중 ‘공학’이 붙은 학과가 많다”며 “졸업 시 이학사와 공학사를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처장은 “장기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고민하며, 이학사뿐만 아니라 공학사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학사를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대학이 학과별로 공학교육인증신청을 해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학과 학생들이 졸업 시 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 학과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과과정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 ▲프로그램 개선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등 총 8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생대 행정실은 “올해 등록금이 인상되고, 전교적 차원에서 인상분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한 뒤 교육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산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생대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생대 학생회와 행정실은 오는 19일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INCE 1955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늘 당신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